

생활 속 건강정보

마약류의 최신 경향(1)

저자 최혁재
경희의료원 예제팀장
약학정보원 학술자문위원

개요

최근 마약의 남용과 유통에 커다란 변화가 일고 있다. 환각효과만 극대화시킨 신종 마약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높은 중독유발효과와 급격한 부작용 유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스피드 볼과 러시, 태국에서 시작된 야바, 그리고 미국의 마리화나 합법화의 바람을 타고 확산되고 있는 식용 마리화나까지 신종 마약류의 진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마약류를 사전에 단속하지 못하여 어린이를 포함한 청소년층까지 마약 남용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미국 등 서구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키워드

신종 마약, 스피드볼, 러시, 야바, 식용 마리화나

1. 신종 마약류의 출현

(1) 새로운 마약이 온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음지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협해왔던 마약류에 변화가 찾아왔다. 기존의 전통적인 마약이 ‘크리스탈 메스’라고 불리는 필로폰과 서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코카인으로 대별되었다면, 최근에는 이른바 ‘신종 마약’이라 불리는 새로운 마약들이 또 다른 위협을 가지고 찾아오고 있다. 기존 마약이 천연물에서 추출된 성분의 순도를 가지고 품질을 가능했다면, 신종 마약류는 좀 다른 특징을 가진다. 신종 마약류의 제조 목적은 철저히 환각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있기 때문에 기존 마약성분과 유사하게 화학적으로 합성된 유도체들이 주류를 이룬다. 여기에 기존 마약에다 카페인까지 섞은 ‘각테일식’ 마약들 및 기존 마약을 천연식물에 첨가하여 담배 형태로 만든 것들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아무래도 환각효과가 조금이라도 더 크고, 지속시간이 긴 것을 찾다보니 중독유발 효과는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신체에 미치는 부작용의 위험성 또한 다 파악하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신종 마약이라고 분류되었던 엑스터시, GHB, 졸레틸, 배스솔트 외에도 최근 언급되고 있는 신종 마약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느새 뿌리깊이 자리잡고 있는 그 남용과 불법유통의 실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2) 최근 등장한 신종 마약들

① 스피드볼(Speed ball)

최근 한인사회에서 젊은 층에 유행하고 있는 마약으로 경고되고 있는 것이 바로 ‘스피드볼’이다. 이 스피드볼은 코카인과 헤로인 등의 기존 마약을 2가지 이상 섞은 것이며, 스피드볼을 투여하면 난폭한 행동이

나타나는 특징을 갖는다. 기존 마약 1가지만으로는 난폭한 행동이 특징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혼합마약인 스피드볼을 투여하면 환각에 빠진 상태에서도 힘이 넘쳐나는 것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폭력적으로 행동이 바뀐다는 것이다. LA 다운타운과 오렌지 카운티 샌타애나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어가고 있으며, 최근 마약 중독 때문에 상담소를 찾는 한인 청년들 대부분이 이 스피드볼 중독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여러 종류의 마약이 동시에 투여될 경우, 시너지를 보이면서 환각효과 같은 약리작용이 2~3배 이상 증가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외에도 한인 학생들은 마리화나에서 추출한 환각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과 동물 마취제로 쓰이는 펜시이클리딘(PCP)을 혼합하여 만든 담배류 마약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 LA 한인타운의 상담소에서만 상담 사례가 1개월 평균 10건이나 될 정도인데, 숨어서 마약을 하는 특성상 정확한 중독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측만 하고 있는 형편이다.

② 러시(Rush)

최근 밀수를 통한 국내유입이 부쩍 늘어난 신종 마약으로 ‘러시’가 있다. 이미 러시는 2009년 처음 국내로 반입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었다. 그러나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환각 및 흥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되었지만, 마약법상 지정마약류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지면서 죄형법정주의상 러시를 구매한 사람을 처벌할 수 없었다. 그 후, 2013년에 이르러서야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가 되면서 러시 투약 및 유통을 처벌할 수 있는 길이 뒤늦게 열린 것이다. 이 러시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노란색 바이알에 담겨진 러시는 액체 상태인데 뚜껑을 열어 본 드처럼 코로 들이마실 수 있는 흡입마약이라는 것이다. 작은 병 하나만 있으면 수십 번 흡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고,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최근 부쩍 사용이 늘어난 ‘해외 직구’ 방식으로 들여오기가 쉬워진 것이다. 바이알에 담긴 액체 형태이기 때문에 국내로 유입될 때에도 가족청결제나 액체향으로 위장한 채로 들여올 수가 있었던 것이다. 국내에서 처음제로 알려진 러시는 특히 국내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동성애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약을 거래하거나 함께 투약할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림 1. 신종 마약 ‘러시’

③ 야바

야바는 최근 신종마약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마약으로, 전 세계적으로 마약을 공급하는 마약밀매조직

‘쿤사’가 개발한 것이다. 요즘 신중마약 경향중의 하나로서 여러 가지 마약을 섞어서 복용하는 것인데, 새로운 물질들을 섞은 것이 아니라 필로폰에 카페인, 그리고 기침약으로도 쓰이는 코데인을 25:70:5의 비율로 섞어서 알약이나 캡슐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마치 의약품처럼 위장하기도 쉬운 편이다. 야바는 피로 회복 효과에다 각성 효과까지 빨리 나타내게 하기 위해 필로폰에다 카페인까지 아주 많이 들어가서 피로를 잊게 하는 각성제 역할을 하면서 말처럼 힘을 좋게 하는 약이라는 ‘Horse Medicine’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복용 후, 수분 내에 효과가 아주 빨리 나타나면서 필로폰의 환각효과와 중독성을 아주 강하게 나타내는 특징을 가진다. 야바는 약효발현도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부작용도 역시 강하고 빠르다. 심장박동도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면서 무려 30시간 동안 가라앉지 않을 정도이다. 탈수증세도 심해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부작용이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수일동안 계속 복용하다보면 신경조직을 파괴하면서 정신착란이나 공포, 환각 증세를 심하게 일으키는 특징을 가진다.



그림 2. 신중 마약 ‘야바’

④ 식용 마리화나

최근 미국에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건이 인지되고 있다. 워싱턴주 킹카운티에서 식용 마리화나 제품을 섭취하고 중독증상을 일으켜 독극물 센터에서 치료받고 있는 주민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치료받은 사람의 수가 현재까지만 해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1/3 이상이 미성년자들이라는 것이 더 크게 와 닿는 수치이다. 그것도 6명은 6세 이하라는 것이다. 집에 마리화나가 들어있는 초콜릿이나 케이크를 잘 모르고 먹었다가 건강에 해를 입은 것인데, 불안발작, 정신병 증상, 호흡억제 등을 보였던 것이다. 그 외에도 미국 전역에서 사탕이나 과자 모양으로 만들어진 식용 마리화나가 광범위하게 밀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마리화나 사용 합법화 현상과 궤를 같이 한다.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의료용 마리화나의 사용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의 마리화나 시장은 매년 30% 이상씩 급속 성장하고 있으며, 2020년이 되면 한화로 14조 4천억 규모가 될 것이라고 미 시장조사 기관 IBIS 월드가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 52개 주에서 23개주가 의사 처방에 의한 의료용 마리화나의 사용만이 합법화되어 있는데, 콜로라도주와 워싱턴의 2개주는 기호용 마리화나까지도 합법화 되어 있다. 킹카운티 사건은 바로 이 워싱턴 주에서 일어난 것이고, 식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미주리주, 뉴저지주, 오클라호마주에서도 이 제품들이 불법유통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탕, 과자, 버터의 형태로 만들어진 이 제품들은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데 더 큰 위험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제품들은 마리화나 특유의 냄새도 나지 않아 거부감도 없고, 밀거래 시 적발될 위험성도 낮을뿐더러 또 다른 위험을 안고 있다. 바로 피우는 마리화나는 몇 분이면 효과가 나타나지만, 먹는 마리화나는 위장관계를 거치면서 혈중으로 흡수되어야 하기 때문에 1시간 내지 3시간 뒤에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빨리 효과를 얻으려고 계속 섭취를 반복하면서 한꺼번에 다량의 마리화나를 복용하게 되고, 결국 급성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2. 마약류 남용과 불법유통의 최근 경향

(1) 미국의 고민

미국의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는 바로 마약이 너무 범람한 탓에 ‘우리의 내일이 있을까’라는 것이다. 매년 마약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연간 수십만 명을 감옥으로 보내는 바람에 다른 범죄인들을 수감할 곳조차 부족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마약사범은 점점 늘고 있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물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서 취했던 가장 큰 조치가 바로 콜롬비아 정부와 1989년에 공동으로 수행한 코카인 밀매조직에 대한 대규모 소탕작전이었다. 당시 콜롬비아는 전 세계 코카인의 80%를 생산하고, 마약왕이라 불리던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공장에서 가공된 코카인이 매일 2톤씩 미국으로 수출되던 상황이었다. 당시 콜롬비아 정부군과 경찰은 이 마약조직들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벌이면서 무장한 마약조직과 거의 내전을 불사하는 일전을 치렀다. 그래서 약 2억 달러의 코카인을 압수하고 1만 여명을 체포하였으나 무장된 마약조직이 강력한 화력으로 응전하면서 결국 미국의 대대적인 지원으로 이어졌다. 두 번째 작전에서 2만 여명을 검거하고, 조직이 소유하고 있던 수백 대의 항공기와 보트 및 차량을 압수하였다 그러나 결국 이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 결과로 인해 콜롬비아의 법무장관, 검찰총장, 법관 200명, 언론인과 경찰 수십명이 살해를 당한 피의 보복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이 코카인 재배와 유통사업은 무려 30만명의 콜롬비아인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산업의 형태를 띠고 있었고, 120만명의 사람이 코카인 정제과정에서 피고용인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커다란 산업을 근절시킬 만한 동력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많은 세계인들이 커피가 콜롬비아의 최대 수출품목이라고 알고 있으나 커피가 벌어들인 돈의 4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코카인 재배를 통해 벌어들이고 있고, 이 돈은 수많은 콜롬비아인들의 밥줄이었던 것이다.

결국 이 미국인들의 마약을 근절하지 못한다에 대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청소년들은 담배와 술을 찾는 비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지만, 반대로 마리화나의 사용경험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청소년중 중고교 재학생 8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흡연율은 6%대로 낮아졌고, 음주율도 27%에 지나지 않지만, 마리화나를 피워본 학생들은 무려 36%가 넘었고, 매일 마리화나를 피우는 학생도 약 7%에 달할 정도이다. 이렇게 미국 청소년들에게 마리화나의 흡연경험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는 담배와 술에 유해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지만, 마리화나에 대해서는 아직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탓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자라난 미국의 청소년들은 어렸을 때의 마약 복용 경험을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나간다. 미국 최고의 유서 깊은 명문대학교인 하버드대학교 교내신문인 ‘하버드 크림슨’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졸업생 10명중 4명 이상이 마리화나를 한 번 이상 피운 적이 있다고 답했다. 불법마약인 코카인과 엑스터시 등을 복용한 적이 있다는 답변도 전체의 7%나 되었다. 아무리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할지라도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특별한 제한 없이 마약에 손을 댈 수 있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마약 투약 경험은 드디어 캠퍼스 내 마약거래의 증가라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2015년 미국 조지아대의 학보 ‘레드앤블랙’은 조지아 대학교 캠퍼스 내 마약거래가 위험수위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2015년 1월 마약거래중 벌어진 사고로 한인학생이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으며, 평범한 대학생이 사교클럽에 ‘대마초 배달’을 시작하면서 ‘대마초 딜러’가 된 사연을 실었다. 조지아 법에 따르면, 1온스 이상 대마초를 소지하면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소량씩만 구매하러 애틀랜타를 1주일에 3~4회씩 오가며 대마초를 공급해온 것이다. 더 심한 것은 마약거래가 늘어나면서 경쟁자간에 생명의 위협까

지 이르는 폭력적인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학문의 전당인 대학 캠퍼스에도 대마류를 통한 마약중독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을 정도로 불씨가 커져가고 있다.

청소년기와 대학생 시절을 지나 사회인이 된 이후에도 이 고민은 이어진다. 미국 최대 약물검사업체인 '퀘스트다이아그노스틱'이 기업 수백만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14년에 실시한 910만 건의 소변검사 결과에 따르면, 3.9%의 근로자에게서 마리화나와 필로폰, 아편 등의 약물성분이 검출되었다. 거의 매년 감소되던 추세에서 벗어나 2013년보다 증가하는 역전의 추세를 보였다. 특히 마리화나의 증가 사례가 뚜렷했다. 이렇게 마리화나의 사용이 증가한 원인으로 일부 주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것이 원인으로 제기되었다. 전체 양성반응의 절반을 차지한 마리화나 검출은 23개주에서 합법화되었지만, 실제로 직장의 고용주들은 약물검사를 도입하여 직원을 채용하기 이전에 마약사용자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Screening Employees

The share of U.S. workers testing positive for drugs is growing, according to data from millions of workplace drug te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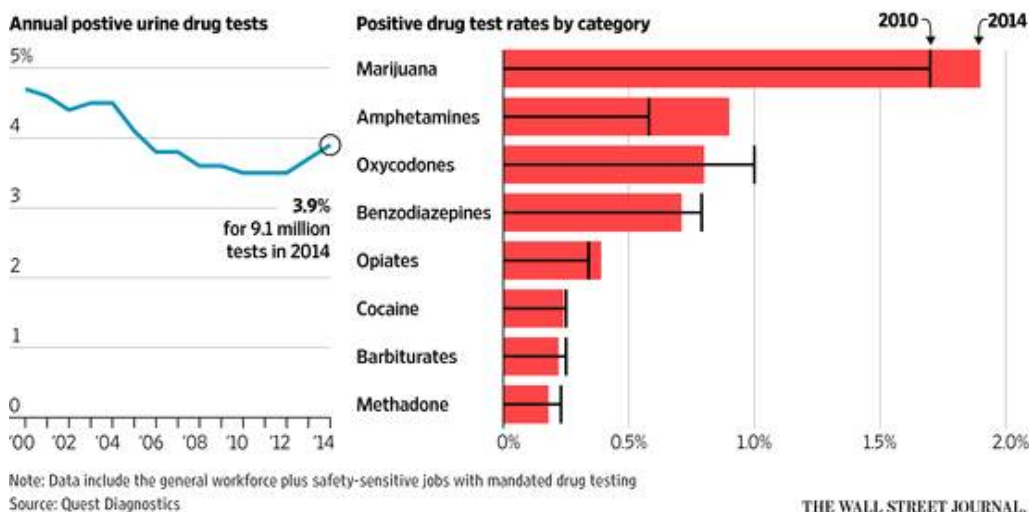


그림 3. 미국 근로자들의 약물검사 결과(by 퀘스트다이아그노스틱, 2014년)

이 마약경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 약물중독 상태에서의 위험한 운전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전국 고속도로안전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7년에 대비하여 2014년에 적발된 음주 운전자가 약 30%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지만, 같은 기간 내에 불법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한 비율은 오히려 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마리화나를 흡연한 채로 운전한 운전자는 50%나 늘 정도이다. 대마류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음주운전 못지않게 대마류 같은 불법약물 복용후의 운전이 더 우려를 낳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마초에 취한 30대 남성이 추돌사고를 낸 뒤, 이상한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 마약복용이 의심되었고, 이후 추가로 이뤄진 조사과정에서 대마를 흡입한 사실이 적발된 적이 있다.

이처럼 세계 강대국인 미국의 고민은 바로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잠식해 들어오는 마약의 위협 앞에 뚜렷한 대책 없이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데에 있다. 특히 국가의 내일을 만들어가야 할 청소년들에게 마약이 다양한 모습으로 침투하면서 통제 불능의 사회로 갈 수 있다는 데에 대한 확실한 불안감이 피어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우려는 또 다른 대표적 서구권 국가인 영국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2011~2014년까지 잉글랜드 웨일스 경찰에 의해 적발된 학교 마약사건(교내에서 마약을 하다 적발된 사건)은 2천건이 넘는데, 이 중 대마 복용은 625건, 코카인 복용은 27건, 나머지는 암페타민이나 엑스

터시 등의 마약과 관련된 것이었다. 가장 많은 연령대는 15~16세로 나타났는데, 적발된 학생 중에는 심지어 8세 아동까지 있었다는 것이 더없는 충격이었다. 교사들의 얘기로는 학교 내에서 적발된 것은 학교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약복용 실상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최근 수년 동안 학교 예산이 삭감되면서 마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려는 전문 프로그램이 사라진 것도 이 추세에 한 몫을 했을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약사 Point

1. 환각효과가 극대화된 신종 마약류가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약의 전문가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2. 지역 환자들이 불법적인 약물의 오남용에 대해 충분한 경각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과 조언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 1) 중앙일보,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2432833
- 2) 일요시사,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210>
- 3) 글로벌비즈,
http://www.g-ene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1504210720472506065_1/article.html
- 4) 중앙일보,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534173
- 5) 매경뉴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474494>
- 6)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454336&code=61131511&cp=nv>
- 7) 두산백과
- 8) 내셔널 지오그래픽, 마약전쟁 중 4편 '마약왕', 2011년 3월 방영
- 9)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5422225>
- 10)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492909&code=61131511&cp=nv>
- 11)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어판,
<http://kr.wsj.com/posts/2015/06/05/%eb%af%b8%ea%b5%ad-%ea%b7%bc%eb%a1%9c%ec%9e%90-%eb%a7%88%eb%a6%ac%ed%99%94%eb%82%98-%eb%93%b1-%ec%95%bd%eb%ac%bc%ec%82%ac%ec%9a%a9-%ec%a6%9d%ea%b0%80%ec%84%b8%eb%a1%9c-%eb%8f%8c%ec%95%84%ec%84%9c/>
- 12) 중앙일보,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479712
- 13) 중앙일보,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140323
- 14)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424000317&md=20150424101648_BL
- 15) 대검찰청 2014 마약류 범죄백서
- 16) 네이버 지식백과
- 17) 식약처 마약류 종합정보 홈페이지 e-book